

전통의 거리, 문화 장터에서 열린 책잔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북 페스티벌'

가을이 깊어가는 인사동에서 책잔치가 벌어졌다. 종로구청과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회장 이후재)가 주최한 '북 페스티벌'이 지난 11월 2일, '인사동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것. 고서적 및 문화예술 관련서적을 전시 판매한 이 행사에는 가나아트·삼성출판사·현암사·대원사·어린이 도서유통 서당·서울교재·도서출판 한림·현대화랑 등 10여 출판사가 참가했다. 이 행사는 매주 개최되는 인사동 전통문화축제에 포함된 테마전이다.

열린 문화공간의 도서전

인사동문화보존회의 백승제 실장은 "지난번에 기획행사로 치렀던 판화축제가 호황리에 끝나서 두번째로 기획한 테마전"이라고 밝힌다.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던 25개사 출판사가 10여개 출판사로 줄었지만 나름대로 알차고 성과 있는 행사였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서점을 벗어나서 열린 문화공간에 독자와 책이 만나는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이 행사는 의의가 있다. 전통축제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도서전시에도 관심을 보였고 판매율도 좋은 편이었다. 현암사의 경우는 120여권이 그 자리에서 팔려 나갔고,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는 당일 250여권이 팔렸다.

현암사 영업부의 차우석 과장은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은 문화욕구가 높은 독자층이다. 때문에 좋은 책들, 우리 고전들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인사

동전통문화보존회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전시된 책들로는 우리 고전과 문화예술관련 서적이 많이 눈에 띄었고, 각 출판사의 어린이책을 모아 전시판매한 서점연합 '도서출판 서당' 코너에는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들로 호황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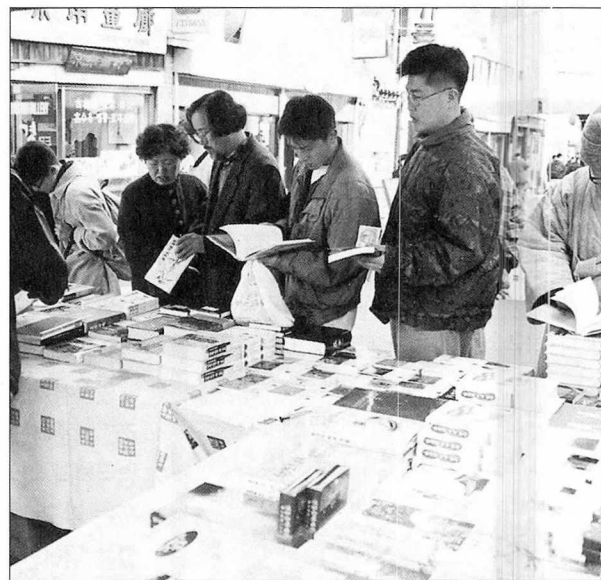
"어린이서점 체인 '서당'의 홍보차원에서 나왔다. 별 기대없이 나왔는데 동화와 학습만화들이 많이 나간 편"이라고 판매원은 말한다. 삼성출판사는 20% 정도 할인판매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몇몇 출판사는 정가의 백원 단위는 에누리해서 팔기도 했다.

정기 행사로 자리잡아야

이 테마전의 반응이 예상외로 좋아서 인사동문화보존회와 출판사측은 정기적인 행사로 굳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기행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알찬 행사를 시도해 볼 참이다.

그러나 이 행사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존회측은 행사 운영비로 12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았는데, 전반적인 불황기라 출판사들이 이 참가비조차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참가한 출판사들은 "행사의 의의와 성과를 따져보면 참가비가 그리 비싼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행사에 출판사들의 관심과 의욕이 부족하다는 것.

인사동 문화축제가 전통문화축제인 점을



전통과 예술의 거리 인사동에서 열린 '북 페스티벌'. 전통 문화에 관련된 책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았다.



감안하여 행사 취지에 맞는 책들을 선별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참여 출판사 수가 적은 탓이었지만 문화예술 관련서들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했던 점과,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뒤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 좋은 책을 보여주

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독자나 출판사가 상흔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다채로운 민속행사와 볼거리가 펼쳐지는 인사동 전통문화축제는 12월부터 봄까지는 설 예정이다. — 마정미 기자

한국인의 종교 경험 巫敎

차우송 지음/304면/9,500원

종교학자인 저자가 한국인의 종교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무당과 신도들을 직접 만나 채록한 66가지의 사례를 담았다. 저자가 직접 참관한 내림굿, 개수굿, 마을굿, 우환굿, 뉘굿 등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그에 얽힌 경험들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자아의 탐색

한자경 지음/240면/7,500원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이 쉽고도 간단한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해석이며, 이토록 어려운 문제에 대한 시원하고 명쾌한 논리적 정리이다. 서양 철학의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불교의 공(空)사상과 자아관이 체계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유장하게 펼쳐진다.

존 스튜어트 밀: 생애와 사상

W. 토머스 지음/하남걸 옮김/192면/6,500원

《자유론》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학문을 요약·소개하고 있는 밀 입문서. 수많은 문헌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밀을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 책은 비전공자에게도 밀의 사상에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철학만화① 너 자신을 알라

조준상 글·그림/192면/6,000원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느끼고 있는 철학을 청소년과 일반 독자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우리 필자의 글과 그림의 만화로 엮어 기획한 서광사의 철학만화 시리즈 첫권으로 그리스·로마 철학자의 삶과 사상을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